

여섯 번의 수감 생활을 한 여성 노인의 생애사 재구성

Study of Life History of Elderly Women who had Six Times of Imprisonment

양은숙,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Eun-Sook Yang(lovejesus410@hanmail.net), Dong-Hun Lee(dhlawrence05@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생애 통상 여섯 번의 수감 생활과 삼청 교육대 입소 경험이 있는 한 여성 노인의 삶을 생애사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생애사 텍스트는 만델바움(Mandelbaum, 1973)이 제시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삶의 영역은 보조 공원시절의 노동 착취, 미군 전용 클럽에서의 호스티스 생활, 교도소 수감생활, 삼청 교육대 경험,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 생활, 농업 노동자의 생활로 나타났다. 삶의 전환점은 보조 공원 겸 가사 도우미 취업, 교도소 입소, 생계를 위한 호스티스의 삶, 국가 폭력에 의한 삼청 교육대 입소,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과 이혼, 농업 노동자로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거부로 나타났다. 적응 전략은 보조 공원 시절의 철저한 순응, 소년 교도소 시절의 과장된 위약적 행동, 호스티스 집창촌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돈 버는 기계,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 후 현모양처로서의 적응, 자영업자와 농업 노동자의 저항적 적응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에 의해 사회적 낙인과 함께 여성 수용 경험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여성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수 있는 상담심리치원의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만델바움의 생애사연구 | 여성재소자 | 출소 후 사회재적응 | 서발턴 | 사회적 낙인 | 트라우마 |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ife history of an elderly woman who had six times of imprisonment and entered a Samchung re-education camp. This study of life history followed the analysis of Mandelbaum(1973) pointing three perspectives of life: dimensions, turnings, and adaptations. Participant's dimensions of life were exploitation of labor, hostess life for U.S. military, prison life, Samchung re-education camp, marriage with the disabled, life of a farm worker. Turnings of life were serving as a maid, confinement of prison, life of hostess for living, being remanded to Samchung re-education camp by state violence, marriage and divorce, denial of social welfare service. Adaptations of life were downright adaptation in early life, exaggerated act in juvenile reformatory, prostituted women as a simple fortune-maker, adaption as a good wife and wise mother after marriage, resistive adaption as a self-employed. and farm worker. Based upon this results outcome,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were suggested.

■ keyword : | Mandelbaum's Life Historical Study | Female Ex-offender | Social Readjustment after Release | Subaltern | Social Stigma | Trauma |

I. 서론

여성은 정치 사회적 권력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에서도 소외되었다. 범죄학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성 담론 위주로 수행되어 왔다. 일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여성 범죄를 다루어 왔기에 여성 범죄를 주제화 했지만 남성들과 비교 차원에서만 수행되었고, 여성들의 범죄 자체에 관심을 둔 연구는 매우 드물다[1]. 여성주의 범죄학자들은 기존 범죄 이론이 남성 범죄에 대한 자료 축적과 그 근거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기에 여성들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는 매우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자원과 권력이 부족하여 쉽게 교도소에 수감되고 또한 출소 후에도 직업, 사회적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또한 사회적으로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낙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다. 남성들의 경우 성폭행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폭력이나 여타 범죄들은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미화되기도 하고 또한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저항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범죄만큼은 매우 냉혹하다[6-8]. 따라서 여성들의 경우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과도한 죄의식과 속죄 압박 등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적 낙인을 견디지 못해 또 다른 일탈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많다[9][10]. 지금까지 수행된 교도소 출소 여성에 대한 연구는 여성 재소자들이 출소 후에 자녀 양육 경험과 사회재진입,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여성 출소자들의 출소 후 삶을 다루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 출소자들이 자녀와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였을 뿐 사회적 관계 더 나아가 전 생애 과정에 대한 연구는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외국도 동일하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성 출소자와 남성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 연구에서는 여성 출소자는 남성 출소자들에 비해 노숙자가 되기 쉽고[11], 배우자와 가족 간의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더 높으며 사회적 유대가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12]. 지

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외 여성출소자에 대한 연구는 이렇듯 가족 차원과 사회재적응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전 생애에 걸친 생애 경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도소 수감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형사 사건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이다.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현재는 형실효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 복역을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과가 실효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출소자들이 사회 재적응 문턱을 낮추는 데는 기여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원조회 등을 비롯하여 많은 불이익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이익은 일순간적인 손해가 아니라 생애에 지속되는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성 수감 경험자들의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과 낙인에 있어 때로는 남성들보다 더욱 가혹한 차별과 경험을 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빈곤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법의 목적은 약자 보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 수감 경험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 여성의 출소 후에 사회 재적응과 삶의 여정을 생애사적 연구 관점으로 접근하여 교도소 수감 경험이 사회적인 환경을 비롯하여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꺾절(毀折)시킬 수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개인의 삶은 정치적인 동시에 문화적이고, 경제적이다. 한 개인의 현재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발현(發現)이며, 그 생의 이야기는 추상적이 아닌 일반적, 구체적인 것을 지니고 있다[13].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 일반성은 현상에 대한 통찰력은 물론 실제적 정책과 제도 수립을 위한 경험 자료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교도소 수감 경험이 있고 그 후 다양한 원인으로 교도소에 수차례 수감되었던 한 여성의 생애사를 통하여 그 삶의 서사를 드러내는 한편 여성 재소자들의 사회재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만델바움(Mandelbaum)이 제시한 생애사 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발전된 학문이다. 개인적 삶의 기록을 넘어 사회, 환경에 끊임없이 반응하여 도출된 결과인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특정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하며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과 실천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인 여성 출소자 또한 사회구조적 약자로서 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그녀의 삶을 통찰하며 출소자들의 사회 부적응 문제, 재범 등 이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정책 지원을 재고(再考)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andelbaum은 기존의 생애사 연구들이 한 개인의 서사에 머물렀다는 비평을 통해 그 구조와 사회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분석들을 제시하였다. 한 개인의 생애 삶의 영역, 전환점, 그리고 적응 순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은 상호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개인의 생활을 유기적이면서도 총체적인 관점에서 드러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14].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Miles와 Huberman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표집 방법 중 최대 분량 표집(Maximum variation)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했다. 이는 질적 연구 수행에 있어서 풍부하고 다양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한 개인을 의도적으로 표집 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여성 노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여성 노인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공원으로 팔려가 다시피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생애에서 여섯 번의 수감 생활을 했고 특히 1980년대 초반에는 여성이지만 삼청 교육대까지 끌려간 여성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부정과 저주의 표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다. 연구자들은 여성 노인의 삶에는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폭력과 편견, 과거의 비규범적인 교도행정, 국가 폭력 등이 개재해있다

고 판단하고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사회복지사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소개 받았고 수차례의 설득 끝에 연구 참여에 동의 받았다.

2)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를 위한 텍스트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수행하였다. 생애사 자료 수집은 통상적으로 자료 수집, 일반적인 자료 수집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다양한 맥락과 사회 구조적,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자료수집 방법으로 접근하였다[15]. 심층 면담은 완전 개방형으로 수집하여 연구 참여자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은 총 15회를 시행하였다. 회 당 60분 이상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에서 수행하였다. 면담 기간은 2017년 9월 4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소요되었다. 심층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고, 이를 필사본으로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Mandelbaum이 제시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삶의 영역에서는 한 개인의 삶 자체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서술적 이야기로 기술하는 것이다. 삶의 영역은 직업, 가족관계,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정서 세계까지도 포함한다. 전환점 분석은 한 개인의 삶의 전환점을 분석함에 있어 전환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이것을 가능케 한 사회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조건도 분석하는 것이다. 적응 분석은 삶의 영역과 전환점에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주기별 적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취합하여 한 개인의 생애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문제

질적 연구에 의해서 연구의 엄격성이란 연구 결과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자들이 제안한 장기간의 길친 라포 형성, 동료 지집단의 구성, 연구 참여자를 통한 확인의 과정을 거쳤다. 라포 형성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

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반응을 소거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심층 면담을 수행하기 전부터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교류를 했고 자료수집이 끝난 후에도 현재까지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교류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연구자들은 생애사 연구를 다소 수행한 질적 연구 전문가 1인, 교정전문가 1인, 사회복지사 1인으로 동료 지집단을 구성하였다. 동료 지집단은 연구의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고,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독단성 등을 제거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연구자들은 생애사 자료를 분석하고 기술함에 있어 이중 해석이 가능하거나 모호한 부분들은 동료 지집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의견을 구했다.

본 연구는 한 여성 노인의 삶, 특히 교도소 수감 생활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지극히 예민하면서도 고도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 수행 전 자체적인 연구 수행기준을 구성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윤리의 대원칙은 연구 참여자의 비밀과 사생활 보장이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모든 상황은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둘째, 연구 착수 전부터 종료까지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였다.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서 연구 참여 권유를 하였을 뿐 소개자를 통한 압력, 종용 등은 하지 않았고 수차례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를 얻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삭제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문서로서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모든 기록은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물쇠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였고, 녹음파일은 필사가 끝난 후 폐기처분하였다.

III. 연구결과

<김순옥(가명)의 생애사 재구성>

김순옥(가명)씨는 2018년 현재 만 67세 여성으로 경기도 OO시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1951년 충청남도 OO군 OO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소작농으로서 약 2000평의 전답을 붙이

고 살았으며 슬하에는 생애사 주인공을 포함하여 2남 3녀의 자녀가 있었다. 그녀는 장녀로 태어났다. 1952년 그녀의 나이 여덟 살 때 충청남도 OO군 OO면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1963년 그녀는 국민학교(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5학년이 되던 때 중퇴했다. 그 당시 국민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무단으로 나가지 않았고 교육청은 물론 학교에서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학교를 그만 두었다. 1964년 그녀의 나이 열세 살 때 대전에 있는 OO기업의 견습공 겸 가사도우미로 취업을 했다. 그녀가 일하던 공장은 종업원 20명 미만의 작은 중소기업으로서 섬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1967년 그녀의 나이 열여덟 살 때 사장의 재봉틀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되었다. 그녀는 열세 살 때부터 열여덟 살 때까지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숙식만 제공받았다. 단지 명절 때 옷 값과 용돈 정도만 받을 정도였다. 김순옥씨는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재봉틀을 들고 나왔지만 이것이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까마득히 몰랐다. 그녀는 복역을 마치고 잠시 대전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1969년 스물한 살 때 경기도 OO읍의 미군 기지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미군 전용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했다. 1972년 스물세 살 때 그녀는 폭행죄로 또다시 체포되었다. 폭행의 원인은 클럽 지배인과의 다툼이었다. 클럽 지배인이 그녀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떼자 여기에 저항하다 결국 싸움으로 번졌고 힘에 부친 그녀는 맥주병으로 남성의 머리를 가격하여 전치 6주 이상의 상처를 입혔다. 1975년 스물여섯 살 때 또다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OO읍에서는 주한 미군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여성들에게 강제로 성병 검진을 시켰고 성병이 있으면 일종의 격리 수용하는 시설이었다. 그녀는 여기에 완강히 저항하다 결국 공무원들과 시비가 붙었고, 망치로 사람들을 가격했다. 1977년 스물여덟 살 때 또다시 대마초 흡입으로 10개월 복역했다. 대마초 흡입으로 복역한 후 다시 OO읍으로 돌아왔으나 1980년 서른한 살 때 영문도 모른 채 군인들에게 끌려가 삼청 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입소하여 교육을

받았다. 1982년 서른세 살 때 호스티스 생활을 접고 한 쪽 팔이 없는 장애인 남성과 결혼했다. 두 부부는 열심히 일을 했고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3년 서른세 살 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후 강제 퇴거 과정에서 집주인을 폭행하여 10개월을 복역했다. 1987년 서른일곱 살 때 남편과 이혼을 했다. 1988년 서른여덟 살 때 경기도 OO지역에 소위 대포집을 개업했다. 장사는 호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1993년 마흔세 살 때 자신을 성추행하려는 손님을 가게 집기 등으로 구타하여 폭행죄로 체포되어 1년을 복역했다. 1996년 그녀의 나이 마흔여섯 살 때 당뇨병이 발병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거주지에서 채소 묶기, 비닐하우스 일과 같은 농업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

1) 삶의 영역 분석

생애사 주인공의 심리, 정서적 세계를 포함한 주된 삶의 영역은 첫째, 보조공원으로서의 생활, 교도소 수감 생활, 미군 전용 클럽 호스티스의 삶, 삼청 교육대의 생활, 농업노동자의 생활로 나눌 수 있다. 생애사 주인공의 삶의 영역 분석에서는 주된 생활 영역을 분석하고, 노년의 그에게 형성된 가치관과 국가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보조 공원시절의 경험

생애사 주인공은 1964년 그의 나의 열네 살 때 소규모 제조업체에 보조 공원 겸 가사도우미로 취업했다. 당시 생애사 주인공의 부모는 생애사 주인공의 의사를 묻지 않고 취업시켰으며 그녀는 이곳에서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 지금도 간혹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노동착취가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지만 당시 장애인들은 물론 소년 노동착취가 거의 일반화된 케이스였다.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생애사 주인공은 단지 숙식만 제공받았고, 1년에 두 번 있는 추석, 구정 명절에 옷 한 벌 값 정도만 받았다.

“그때는 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월급?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밥만 먹여주면 고마운 거고. 밥이라고 해봐야 콩보리밥에 가끔 쌀이 섞여 나오고 콩나물

국, 단무지, 찐지. 일 년에 생선 꼬투리는 한 뼛만 먹어 봤나? (이하 중략) 월급은 한 푼도 없었어요. 감히 월급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밥 먹여주는 거에만 고마웠죠. 그러다 대가리가 커지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점차 들었던 거죠.”

생애사 주인공은 그 후 1967년 열여덟 살이 되던 해 독립을 결심했다. 서울에 가면 식모살이를 해도 밥은 먹을 수 있고 월급은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사장에게 그간의 임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장은 그녀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욕을 했다. 생애사 주인공은 사장의 집을 나오면서 그 당시에 고가인 재봉틀을 들고 왔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범죄의식이 없었다.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았기에 그것을 들고 나와도 무방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는 곧 체포되었고,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생애사 주인공의 기술에 의하면 검사는 물론 국선 변호인, 판사조차도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생애사 주인공은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있었지만 국선 변호인은 공판에서 딱 한마디,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한다. 생애사 주인공이 평생 적대적 관점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부류들이 법조인들이었다. 그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복역할 수밖에 없었다.

“교도소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돈 있는 집 애들은 하나도 없고 다 같은 애들이예요. 진짜로 고구마 세 개 훔치고 징역 6개월 받아서 들어온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가게에서 그때 장시 액수는 몰랐는데 조금 훔쳤는데 하지도 않은 절도죄 13개를 덮여 쓰여 들어온 애도 있었어요. 그때 어쨌든 나는 돈이 있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라는 거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전에 1980년도인가, 1990년도인가 언젠가. 교도소에서 탈출한 사람이 권총 들고 인질 삼고 그랬잖아요. 무전유죄, 무전유죄라고 했는데 그게 딱 맞아요.”

생애사 주인공은 10개월을 복역한 후 그의 나이 스물한 살 때 경기도 OOO읍으로 이주한 후 미군 전용 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2. 미군 전용 클럽에서의 호스티스 생활

생애사 주인공이 일한 미군 전용 클럽은 Fine bar였다. Fine bar는 출근을 하지 않거나 미군들과 외박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곳이었다. 생애사 주인공은 그녀의 표현처럼 '가진 것은 몸통이 하나밖에 없었기에 기지촌 주변으로 유입' 되었다. 미군 기지촌 호스티스 생활은 말 그대로 몸을 밀친으로 하여 처절한 생존을 이어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옥 같은 곳에서 생애사 주인공은 국가의 두 얼굴을 여실히 보게 되었다. 주한 미군의 주둔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일 때 주한 미군들의 권위는 보장되었지만 한국인들의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되었다. 생애사 주인공의 구술에 의하면 미군 MP(military police)들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업소는 물론 한국인의 주택까지 침입하여 수색을 하였고 주한 미군을 상대하던 여성들은 잔인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생애사 주인공은 자기의 동료가 미군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 지독한 폭력을 당했고 OO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주인공은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였으나 기지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더 저주하였다. 주인공은 소위 기지촌 정화정책 후에 거의 매주 보건소에 가서 강제로 성병 검사를 받았으며 성병에 감염된 것이 인지된 후에는 격리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경험에 의하여 국가는 강제로 성병 검진을 하고 여성들을 가두는 미군의 대리인이었다.

“우리들 보고 양색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 좋아요 거기 생활은 아까도 많이 이야기 했지만 다 힘든 거고.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미군들이 우리를 막 두들겨 패고 가끔 변태 같은 애들은 죽이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경찰도 그렇고, CID도 그렇고 다 한통속이예요. 그래서 나는 OOO에서 양색시 했다는 거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이 나라에서 떳떳하고 깨끗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하여튼 나는 열여섯 살 때 교도소 갈 때부터 나라라면 아주 지긋지긋 했어요.”

3. 교도소 수감 생활

생애사 주인공은 총 여섯 번의 수감생활을 했고 도합

6년 8개월의 수감생활을 했다. 그녀의 표현처럼 ‘원수보다 높은 별 여섯 개’이다. 그녀가 기억하는 교도소 생활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 주인공의 증언에 의하면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을 개털과 범털로 나눈다고 하였다. 개털이란 주인공처럼 면회 오는 가족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고, 범털이란 가족의 면회가 잦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한다. 개털로서 그녀의 교도소 생활은 철저하게 위악적인 생존전략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재소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고, 또한 약해져야 했다. 주인공의 팔뚝에는 지금도 유리로 자해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녀는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공포를 무기로 삼았고, 교도소에서는 ‘독한 년’이라고 소문이 났다. 돈 없는 수감생활을 그녀는 이렇게 독한 행동으로 버텼다.

“(팔뚝을 올리며) 이거 봐요, 이게 무지하게 많지 양쪽에? 열 땀개 되나? 내가 뭐 뒷백이 있나 돈이 있나. 우리같이 면회도 하나도 안 오는 사람들은 범자라고 해요. 범무부 자식.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걸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호구 잡히지 않고 거기서 한번 호구 잡히면 끝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때마다 굶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도 그렇고, 판 년들도 안 건들이는 거죠. 징벌방에도 무지하게 같아요. 선생님, 개밥 알아요? 개밥? 그게 뭐냐면 징벌방이 반 평도 안 되는 데야. 그리고 뒤를 뽕뽕 묶어놔요.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밥을 주면 손가락질을 못하니까 그냥 엎어져서 먹는 거예요. 그게 개밥이라고. 때마다 나는 원망하는 거예요. 내 팔자를 원망하고 이놈의 나라를 원망하고.”

교도소는 교정, 즉 잘못된 사람들을 바르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교정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교도소 생활동안 그녀는 새 삶을 찾는 탐색이나 자기 삶에 대한 성찰보다는 오기와 저항심만 키웠다고 분석된다.

4. 삼청 교육대의 경험

1980년, 그녀는 서른한 살 때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갔다. 삼청교육대는 일반인들에게 깡패, 전과자, 우

범자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개인들을 입소케 하여 훈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많은 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생애사 주인공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의 미움을 받았거나 또는 경찰관과의 개인적인 원한, 지역주민들의 투서 등에 의해 끌려갔다고 구술하였다.

생애사 주인공은 당시 미군 클럽에서 나와 같은 지역의 집창촌에 있었다. 그녀의 표현처럼 기억 할 수도 없는 어느 날 밤,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과 군인들이 닥쳐 자신을 끌고 갔다. 그녀는 지금도 왜 자신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는지 알지 못한다. 단지, 지역에서는 악바리로 소문이 났었으며 또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은 화대를 주지 않은 경찰관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짐작할 뿐이다. 삼청 교육대에서 그녀는 유격훈련은 물론 공수 훈련을 받았다. 여군들은 잔혹했고, 그녀의 표현처럼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다. 무수한 구타, 배고픔, 그리고 가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곳에 인권, 특히 여성으로서의 인권은 없었다. 주인공은 지금도 삼청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는 꿈을 자주 꾸다고 했다. 꿈에서 깨고 나면 식은땀이 흐르고 다시 그때의 공포가 처절하게 살아난다고 했다.

“내가 동네에서도 그렇고, 교도소에서도 그렇고 악바리로 소문이 났는데. 이게 군인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개네들은 통하는 게 없어요. 나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죽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억지로 끌려갔지만 나도 살아야 하니까 처음부터 기가 풀리면 안 되니까 애들 말 따라 좀 개겼죠. 그러다가 몽둥이로 머리통을 맞아서 열여섯 발이나 꼬맸어요. 애네들이 피가 질질 흐르는 데도 의무대로 안 데리고 가더라고. 확 시범 케이 스라면서 막 보여주고. (이하 중략) 똥 년의 팔자가 짱 페도 아닌데 삼청 교육대까지 끌려갔으니까 나는 산전수전 시가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5.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생활

생애사 주인공은 1982년 그녀의 나이 서른세 살 때 장애인 남성과 결혼을 했다. 당시 그녀는 집창촌에서 나와 동네의 소위 대포집에서 식모 겸 접대부로 있었

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출석했다. 그녀는 뭔가 새로운 삶이 필요했다. 그가 출석한 교회는 상시 출석교인 30명도 되지 않는 조그만 교회였다. 그곳에서 한 쪽 팔이 없는 장애인 남성을 만났고, 목사의 적극적인 소개와 중매로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그녀보다는 여덟 살이 많은 남성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조그만 철물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결혼 생활은 평생 처음 맞보는 달콤함이었고, 행복이었다. 남편은 매우 성실했고, 또한 자상했다. 결혼하기 전 생애사 주인공은 남편 될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놓았다. 하지만 남편은 비난보다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죽을 때 까지 그녀의 과거를 입에 남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생애사 주인공은 대포집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가게 일에 몰입했다. 남편과 그녀가 운영하는 가게는 공휴일에는 물론,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동네에서 가장 일찍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는 집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하지만 1983년 결혼한 지 채 1년이 안 되서 그가 세 들어 살았던 가게와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낙찰자는 그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간 가게에 투자한 모든 것들은 받을 수 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낙찰자는 합법적인 명도 소송을 해서 퇴거를 시키는 게 상례지만 주인공의 표현처럼 ‘병신이라고 깔보고 동네 건달들을 사서’ 강제로 쫓아내려고 했다. 이때 생애사 주인공은 철물점에 있던 도끼를 빼어들었고 집주인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또 10개월을 복역하게 되었다. 1987년 출소한 후 부부는 갈등을 겪었다. 집주인을 폭행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녀의 모든 전과가 드러났고 이것은 집주인에 의해 동네에 전파되었다. 속이 넓고 이해심이 좋은 남편도 동네사람들의 비난과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합의 의혼에 이르렀다.

“뭐 도끼로 직접 찍은 거는 아니고 도끼 뒷날로 몽툰한 대로 어깨 한번 쳤는데. 여자가 뭘 힘이 있겠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이하중략)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집주인 놈이 다 동네에 떠들고 다닌거예요. 뭐 소문 썩 났죠. (이하중략) 남편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러니까 약한 면도 많았죠. 자기가 다 용서하고 품을 수는 있는데 만날 주변 사람들이.. 남편

은 거기 본토배기거든요. 친구고, 선배고, 동네사람들이 나 두고 손가락질 하니까 많이 참았어요. 그래도 나한테 심한 말은 안했어요. 부부싸움 좀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 인생까지 내가 왜 망칠까.. 그냥 이혼하자고, 그러고 위자료 같은 거 좀 주겠다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 사람도 힘든데, 난 평생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6. 농업 노동자의 생활

생애사 주인공은 남편과 이혼 한 후 서른여섯 살에 경기도 OO지역에 대포집을 운영했다. 장사는 그녀의 표현처럼 대박을 쳤지만 마흔네 살 때 자신을 성추행하려는 손님을 폭행했고, 그녀가 주장하는 성추행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폭행죄로 1년을 복역했다. 전과와 과거, 성매매 여성으로 일했다는 점이 핸디캡으로 작용했다. 그 후 비교적 이른 나이인 마흔여섯 살 때 당뇨가 발병 되었고, 지금은 줄곧 농업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다. 주인공은 비닐하우스, 묘목장, 골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일당은 하루 3만원에서 5, 6만원 사이이다. 비 오는 날과 동절기를 빼면 한 달 수입이 80-90만원에 불과하다. 농업 노동자의 생활은 그녀의 표현처럼 죽지 못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공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는 일흔의 부양가족이 없고, 자산은 1천만 원도 안 되기에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노력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서비스는 신청주의와 직권신청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참여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회보장서비스 수급권은 권리이지만 당사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기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연구 참여자는 평생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원수 같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느니 굶어죽겠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보장 서비스는 구각의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설득에도 요지부동이다.

“생각해보요, 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돈 한 톨 못 받은 어린애 자기 월급 대신 갖겠다고 재봉틀 하나 가져온에 징역 살리고, 엄한 사람 강제로 끌고 가고. 물론 내가 잘했다는 거는 아녜요. 다 좋은데 삼청교육대는 왜

끌고 가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주 잘 못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국가 그러는데 믿지도 않고 선거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별 것도 없죠. 올해 예순여섯 살 이니까 내가 당뇨도 있고 간병도 많으니까. 이래저래 죽을거예요. 내가 몇 년 더 살자고 더러운 국가한테 돈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더러우니까, 똥새나니까 시체는 치워줄 거 아녜요.”

삶의 영역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삶은 여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주인공의 경우 그의 가치관이나 정체성, 또는 심리 정서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 대한 불신이었고 이는 열여섯 살 이후에 일관되게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배신감, 무능함에 대한 저주는 현재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국가 지원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 이는 개인으로서 자립생활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삶의 전환점 분석

생애사 주인공의 삶의 전환점은 첫째, 초등학교를 중퇴한 후 제조업체에 보조 공원 겸 가사 도우미로 취업한 것과 둘째, 주인공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인 동시에 추후 삶의 큰 영향을 주었던 교도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인공의 삶의 영역은 미군 기지촌에 있는 클럽에 호스티스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것을 또 다른 전환점으로 볼 수 있고 다섯째,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 생활을 삶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른여섯 살 때 경기 OO지역에 대포집을 개업한 것을 삶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1. 보조 공원 겸 가사 도우미 취업

생애사 주인공은 초등학교를 채 마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조업체의 보조 공원 겸 가사 도우미로 취업했다. 1960년 대 초반,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모든 국민들은 최소한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국가 재정의 부족으로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일 지라도 본인이 원하면 중등 교육 이상은 마칠 수 있지만 당시 한국의 형편은 그렇지 못했다. 생애사 주인공에게는 자신의 저학력이 평생 한이 되었고, 사회 적응을 곤란케 하는 요인이었다. 연구 주인공은 이러한 상황을 부모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의 북 없음으로 돌리고 있다.

“가방끈이 짧으니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공순이 아니면, 다 식모지. 제일 부러웠던 게 옷깃 애기기도 하지만 보험 아줌마들이었어요. 보험 아줌마가 부러운 게 옷깃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옷은 잘 입고 다니고, 최소한 중, 고등학교는 나왔으니까 나 같지는 않았죠. 선생님 같은 거는 꿈도 꾸지 않았고 겨우 한글만 땀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길거리 간판은 죄다 영어로 써 있어서 지금도 커피집인지 미장원인지 헷갈려요. 따지고 보면 못 배워서 공장에 갈 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번 잘못 풀리니까 일이 계속 꼬여서. (중략)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아버지, 엄마라고 해서 나를 거기 보내고 싶어서 보냈느냔 말이에요. 다 내가 북이 없으니까 북 없는 년이 그렇게 사는 거죠. 부모 북이 없었으니까 뭐 선생 북이라고 있었겠어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한테 만날 혼이나 나고.”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퇴학력은 생애사 주인공으로 하여금 이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르게 했고, 평생의 열등감으로 남아있었다. 연구 주인공은 집에서 먹는 입이나 털겠다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대전 소재 소규모 공장에 보조 공원 겸 가사 도우미로 취업하게 되었다.

2. 교도소 생활

생애사 주인공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보조 공원으로 일하고 사장 집에 가사 도우미로 이중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다. 당시 미성년자의 노동은 마땅히 보호되어야만 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법에서 규정한 바이지만 1960년대 후반 노동자들의 권리는 매우 미약했고, 특히 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는 미미했다. 생애사 주인공은 먼지나는 공장에서 평생을 썩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모색했다. 하지만 그녀는 서울로 갈 차비조차 여의치 않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인공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사장의 재봉틀을 들고 나왔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법률 하에서는 절도죄였다. 그는 곧 체포되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사장은 자신의 임금 체불과 가혹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재봉틀을 훔쳤다는 것만 강조했다. 연락을 받은 주인공의 어머니가 찾아가 사장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연구 주인공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조차 없었다. 당시 주인공은 미성년자였기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었지만 국선 변호인은 공판 전까지 면회 한번 없었다. 주인공은 꼼짝없이 10개월을 복역할 수밖에 없었다. 난생 처음 교도소철장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주인공은 불안과 공포에 끊임없이 울었고 그 때 흘린 눈물은 평생 흘린 눈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 그 높은 담장을 딱 쳐다보고 문이 꼭 열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어린 애가. 슬프고 그때 아주 배가 고팠던 기억이 나는데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저기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도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한 이야기들이지 다. 나는 작으니까 아줌마들이 끼고 잔다. 뭐 그런 것부터. 덤비면 밤에 잘 때 침술 같은 걸 갈아서 눈깔을 확 파버린다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이하 중략) 우리나라에서 한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예요. 어디 뭐 취직을 할 수 있나. 호적에 빨간 줄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스무 살 되기도 전에 호적에 빨간 줄 갔으니까. 평생에 빨간 줄이지. 교도소에서 뭐 기술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거 배워서 뭐하겠어요. 취직도 안 되는데. 배는 또 어떻게 고프던지. 거기나 바깥이나 험센 놈이 왕이니까 거기서는 왈왈이라고 그러는데 쉰 년들이 밥도 뺏어먹고 나야 부모님이 면회를 안와서 영치금도 없지만. 나는 사회 나와서 나중에 양육강식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그게 진짜 교도소 하고 딱 맞아요.”

3. 미군 전용 클럽 호스티스의 삶

생애사 주인공은 약 10개월을 복역한 후 잠시 교도소에서 알게 된 언니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다가 그녀의 소개로 스물한 살 때 경기도 OO 소재 기지촌 주변의

미군 전용 클럽의 호스티스로 들어갔다. 생애사 주인공은 미군 전용 클럽에 간 이유를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기지촌 주변은 달러가 마치 물처럼 넘쳐나는 곳이었다. 당시 미군 병장 월급이 한국의 종합상사 과장보다 많은 시절 미군 기지촌 주변은 소위 엘도라도였다. 하지만 생애사 주인공은 그가 원하는 데로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했다. 그녀가 일한 곳은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Fine bar였는데 미군들과 외박을 나가지 않으면 벌금을 물었고 또한 결혼을 해도 과도한 벌금을 물었다. 기지촌 주변에 여성들에 대한 인권 보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당시 달러가 귀하던 시절, 기지촌 주변에서 한국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달러와 소위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기생관광은 커다란 수입원이었다고 구술하였다. 생애사 주인공은 기지촌 호스티스로 일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고, 또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생애사 주인공은 자신을 학대하고 화대상납을 강요했던 기지촌 클럽 지배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또다시 복역하게 된다. 그의 나이 23살 때였다.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그의 짧은 기지촌 생활은 마감이 되었다.

“미군 애들은 변태도 많고, 나도 먹고 살려고 미군 애들 상대로 아랫도리 팔았지만 미군 애들보다 더 미운 놈들이 지배인, 사장도 아네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기지촌 애들이나 내가 일한 데는 한국인들만 받는 창녀촌도 있었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럼 경찰이 잡아와요 부녀보호소라는 데를 보내요 거기는 말이 보호소지, 거긴 감옥보다 더 한대예요, 백하면 때리고, 우리들은 매일性病 검사도 하기도 했고 미군 애들이 하이바가 돌아서 이 새끼들은 때려도 여자들만 때려요 (이하중략) 경찰서 신고해도 순경 와봤자, 미군 CID 오면 그 병신 같은 새끼들은 완전히 쫓지 내리고 슬슬 기어오 나뿐만 아니라 그때 기지촌에 있는 아가씨는 국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달러를 얼마나 벌어들였는데..”

4. 삼청 교육대

생애사 주인공은 그 후 공무집행 방해죄, 대마초 흡입 등으로 복역한 후 1980년 서른한 살 때 내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집창촌에서 일하고 있었다. 1980년 그녀는 잠을 자던 중 이유도 없이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소위 말하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생애사 주인공은 법률적 지식은 없지만 그간의 복역생활로 인해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짓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처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 신 군부가 등장 한 후 사회정화운동이라는 미명으로 공포정치를 펼칠 당시 인권은 물론 형식적인 절차도 없었다. 생애사 주인공은 강패나 불량배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군인들이 집권을 하면 꼭 강패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포정치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공포정치에는 여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 배경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호도하였다. 생애사 주인공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정확한 정보와 판단은 없지만 그녀의 표현대로 만만한 게 강패고, 창녀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호할 세력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생각하는 삼청교육대는 교도소보다는 10배나 더 힘든 지옥이었다. 그녀와 동료들은 교도소 가기를 학수고대 했다. 교육을 맡은 여군들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구타를 했다. 그녀의 기억에 의하면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는 중 후유증으로 인해 생리가 끊어진 여성, 우울증, 정실질환 등을 앓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삼청교육대에 비하면 교도소는 호텔이고 양반이에요 여자들한테도 유격훈련 시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입에서 단내 난다고 그러죠 배는 고르는데 훈련이 끝나도 나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 정도로 힘들었고 여자들한테 생리대를 주기는 주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그 여자들이 모여 있으면 닦지 않으면 더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물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 지독한 냄새. 낮에는 훈련 잘 때는 나도 여자지만 싫을 정도, 배고픈 건 말 할 것도 없고. (이하중략) 얼마 전에 보니까 삼청교육대 끌려간 사람들 남자와 여자고 나와서 이야기 하는데 나처럼 교도소 몇 번 다녀오면 판검사보다 법은 더 잘 알아요 도대체 무슨 나라가 범죄주의 하면서 왜 사람을 내가 뭘 잘못된 게 있다고 끌고 가고, 나중에 보상도 안 해주고.. 아니 강패 아니라 살인자라도 그렇고 재판도 없이 막 끌고 가난 말이에요, 그런데도 OOO 그 새

끼는 참 육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삼청교육대에서 교육 받으면서 얼마나 000 육을 했는지 알아요?”

생애사 주인공은 삼청교육대를 마친 후 집창촌에서 나와 잠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서른세 살 때 같은 동네 장애인 남성을 만나 결혼을 했다.

5.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생활

생애사 주인공은 자신과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을 불쌍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난 것으로 의미 짓고 있다. 생애사 주인공은 삼십대 초반이었지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자신을 의탁하고 싶었다.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복수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 하고 싶었지만 복수도 능력이 있어야 했다. 주인공은 잠시 복수 하고자 했던 마음을 접고, 결혼을 했다.

남성 역시 지역 사회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장애가 이유가 되어 결혼을 하지 못했다. 생애사 주인공과 남편을 열심히 일했고 그녀의 표현처럼 난생 처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다. 하지만 1983년 그녀의 서른세 살 때 그가 세 들어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경낙자는 퇴거를 요구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강제 철거나 명도 소송을 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이사비나 약간의 돈을 주어 무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경낙자는 주인공의 남편이 장애인임을 들어 무시했고 작은 비용으로 동네 깡패들을 동원하고 철거시키고자 했다. 1981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어 세입자들은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인공은 세상 물정을 몰랐고 법류 지식이 없어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

“무식한 거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죄예요, 죄. 무전 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무식이 죄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땐 게 있는지 알았었냐고, 남편도 결혼하기 전부터 살았던 집에 법이 있으면 뭐하냐고, 무식한데 주인

이 그런 거 알려줄 리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없는 것보다 무식한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왔으니까 사회 나올 때부터 죄질 년으로 나온 거예요 그 때 남편이 집 주인한테 그냥 곱게 나갈테니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합의금이 엄청 달라고 하는데, 남편도 가족이 있어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나는 교도소 처음 들어간 이후에 얼마 아버지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꿈쩍없이 또 사는 거예요 뭐. 별은 계속 다니니까 교도소 가면 편하긴 편했죠 처음 교도소 갈 때는 벌벌 떨었는데 가다보니까 내 집 같아요 또 편해 내가 사회에서는 거지고 줄인데, 거기 가면 왕이거든 거기는 무조건 전과 많고 징역 센 년, 놈들이 많으니까. 나정도 되면 완전히 왈왈이 중에서도 상왈왈이예요 한 10개월 살고 나오니까 아쉽더라고 사회에 나와서 뭐 먹고 살까 막맷했지만 거기서는 다 애들이 갖다 바쳤으니까.”

생애사 주인공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남편과 다시 재회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주변의 편견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다. 그들의 이혼은 주인공의 표현처럼 반은 진심, 반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 후 생애사 주인공은 서른여덟 살 때 경기도 OO지역의 대포집을 운영하게 된다.

6. 대포집 개업

생애사 주인공이 대포집을 개업할 당시는 88올림픽으로 인해 한국의 사회분위기가 고조 되었을 때이고 자연히 소비 풍조가 만연했다. 주인공은 대포집이었지만 도시의 큰 술집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적지 않은 돈을 벌기도 했다. 생애사 주인공은 그 당시를 가장 화려했던 시절로 기억한다. 돈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벌었고, 그녀의 표현처럼 한국은 선진국이 된 줄 알고 착각하고 너나 할 거 없이 돈 쓰기에 바빴다. 원가 1000원짜리 아나고를 사다가 안주로 만원을 받았으니 수지맞는 장사였다. 주인공은 당시 돈을 저축하지 못한 것을 매우 후회한다. 주인공은 이러한 행운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오래가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아주 생경한 증권투자를 했다. 주인공은 가게에 단골로 드나들던 손님을 통해 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증권투자에 성공하면 벼락부자가 될 것이라 믿었다. 이러

1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證據力)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한다[17].

한 선택은 주인공뿐이 아니었다. 당시 한국경제에 낙관적 희망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증권투자에 몰입하였다. 하지만 생애사 주인공은 그녀의 표현처럼 ‘깡통을 차고’ 후일 그녀는 자신이 개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표현대로 이 사회는 ‘개미들이 돈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하지’ 않았다. 생애사주인공은 그간 모은 돈은 증권투자로 인해 모두 잃어버리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신용이 좋아 주변에서 사채를 끌어 쓸 수 있었다.

“증권이라는 게 막말로 돈 놓고 돈 먹는 곳인데. 거기서도 돈이 있고 힘이 있는 놈들이 돈을 먹는 거지. 우리 같은 쫄따구가 뭘 돈을 먹겠어요 나는 개미, 개미 그래서 그 말이 뭘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개미라고. 개미는 절대로 돈을 못 먹는다는 걸. 그때는 돈 먹을 줄 알았으니까.. 누가 와서 어제는 오십을 벌었네, 백을 벌었네.. 하룻밤에 사이에. 눈이 안 뒤집히겠냐고 돈만 날리면 괜찮은데 가게도 처분하고, 가진 것은 없고 뭐 어땠겠어요 내 머리털 나고 처음 가진 내거였었는데, 그 가게가. 그게 넘기고 테이블하고 그런 것들 고물장사들한테 팔았는데 3만원 주더라고요. 피눈물이 났었어요. 그랬는데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뭘 못살까 그런 생각을.. 하나까 편하기도 했지만 그러고 그 전에 근처에서 페인트 가게 하던 늙은인데 그 늙은이가 나를..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어떻게 하다가 성질이 나서 두들겨했는데. 그 새끼는 멀쩡하고 나는 잡혀간 거예요. 전과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근데 증거는 없는데 내가 당했다는 거는 없는데.. 이 놈은 두들겨 맞아서 진단서 나왔으니까..”

생애사 주인공은 손님과의 시비 끝에 폭행을 하고 1년을 복역했으며 그 후 자신의 가게를 처분한 후 다시 무일푼이 되었다. 더군다나 마흔 여섯 살에 당뇨병까지 발병이 되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경영했던 대포집에서 버스를 두 번을 갈아탈 정도로 먼 농촌으로 돌아왔다. 그 곳은 북한과 접경지역이고 빈집이 무수히 많았다. 마흔 여섯 살 때 그는 다 쓰러져가는 빈 집에 등지를 틀고 농업노동자 생활을 시작했다.

7. 농업노동자로서의 생활

주인공은 농촌에서 다양한 일을 한다. 비정규직이지만 적어도 일을 하는 날은 두 끼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자신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기도 하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신청하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를 완강히 거절 하였다. 그 후 65세가 넘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찾아와 신청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적지 않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생애사 주인공은 자신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 한다. 그녀의 표현처럼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보호는커녕 시달림만 받았는데 다 죽게 된 마당에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에게 있어 국가는 철저한 배신의 실체이며 자신을 끝없이 구속으로 몰았던 폭력이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고 또한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국가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이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월급 한 톨 못 받았을 때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삼청교육대 끌고 갔을 때 그것도 나라는 나라잖아요. 보상도 안 해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사과라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과도 없고 (이하중략) 이 놈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닌데 미련도 없고 살날도 얼마 안 남았던 말이에요. 내가 잘 살아야 몇 년 더 살 거라고. 몇 년 편하게 살자고 그 지긋지긋한 나라한테 내가 뭘 받겠냐고.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읍사무소에 있는 뭉시깡이가 와서 뭐라고 할 때 네가 처먹던지, 개나 주라고. 아무리 내가 어렵게 힘들게 진짜 거지처럼, 쓰레기처럼 살았어도 나도 사람인데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평생 죽을 때까지라도 평생 끌려왔으니까 내 뜻대로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이미 나는 오기로 똥똥 뭉쳤지만, 죽어도 썩지도 않을거예요.”

3) 적응분석

생애사 주인공의 경우 일관된 적응전략은 부재했고 삶의 영역, 삶의 전환점마다 다양한 전응 전략을 구사했다. 삶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적응전략과 양상, 기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보조공원 시절의 철저한 순응

생애사 주인공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 부모의 의사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 보조공원 겸 가사도우미로 취업했다. 이때의 적응전략은 철저한 순응이라고 할 수 있다. 생애사 주인공은 학교에 다니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시절에도 순응으로 일관했다. 고된 노동과 학대, 폭력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당시 부모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억압적 가부장 문화와 노동자, 특히 소년노동자들을 복지의 대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용, 더 나아가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순응이외에는 길이 없었다. 생애사 주인공은 자신의 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 단지 의식주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순응이라는 생존전략으로 일관했다.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 해아만 했다.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일이 산더미 같아도 불만은커녕 삶은 내색도 못했어요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도 밥은 먹여주니까 그때는 밥이 하나님이었어요.”

2. 소년 교도소 시절의 과장된 위악적 행동

생애사 주인공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절도죄로 체포되었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교도소에서 그녀는 세상에 대한 악의와 반감을 키워가는 동시에 자신의 뜻과는 다른 위악적 행동으로 자신을 지켰다. 그녀는 그 이외에도 수차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고 삼청교육대까지 끌려갔지만 인간정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도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위악적인 행동을 했다. 생애사 주인공은 자신은 본래 벌레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착한 성품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는 레즈비언들의 성적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악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 그녀의 표현처럼 ‘독한 년’으로 소문이 났고, 이러한 편파는 자신을 지켜주는 도구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적응 전략도 군인들이 운영하는 삼청교육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법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생애사 주인공을 비롯한 삼청

교육대 강제 입소생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항변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삼청 교육대 적응 전략은 순응보다 더한 비굴함이었다. 참여자는 전국 규모의 조폭 두목도 군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는 상황에서 군인들의 비유를 맞추며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교도소에 나이든 여자들은 나 같이 어린애들을 남자처럼 만들고 회한한 짓을 다 시켜요 그것도 그렇고 돈도 뺏도 없으니까 강을 부려야 알아주고 한수 접어주니까 하나가 칼 들면 나는 도끼 들어야 되는 게 거기 법칙이니까 나도 기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교도관들도 봐주니까 근데 그게 군인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혀요 골통부리다 병신 되서 나간 여자도 많아요.”

3. 호스티스와 집창촌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적응 전략

생애사 주인공은 미군 전용 클럽 호스티스, 집창촌 성매매 여성으로 일한 적이 있다. 이때의 적응전략은 자신의 몸을 기계로 만들고 철저하게 돈만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는 이 시절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다. 자신이 남성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현상을 잊기 위하여 참여자는 자기 자신을 물건으로 만들었다. 자신을 인격은 물론 영혼도 없고 단지 성을 파는 기계라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인식의 훈련 끝에 무감각해진 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진 후 참여자는 오로지 돈 버는 기계가 되고자 했다. 돈은 그녀에게 원수인 동시에 억울한 삶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원이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기계다. 돈만 넣으면 웃음도 나가고 또 OO도 나오는 기계다.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니까 내 몸이 몸이 아니라 기계가 되었거든. 몸 팔고 웃음 파는 기계. 기계니까 뭐 양심이 있나. 그냥 돈만 바라보는 거지 뭐, 벌게 있겠어. 사람이 다 돈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다 돈이지 뭐.”

4. 장애인남성과 결혼 후 현모양처로서의 적응전략

생애사 주인공은 장애인 남성과 결혼한 후 자신 역시 평범한 주부의 길을 걷고자 했다. 남편을 잘 보살피고,

자녀까지 낳아 양육하고 싶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현모양처 되기라는 적응전략을 택했다. 이 현모양처의 적응 전략은 참여자에게 평온을 가져다주었지만 집 주인과의 불화로 인해 잠시 꿈꿨던 꿈을 내려놓았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된장찌개 끓이고, 집안청소, 빨래하고 평생 살림하는 여자들한테 그거 별거 아니야. 지겨운거고 무식해도 현모양처가 뭔가는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유식한 말 그거 하고 싶으니까. 남편 말 잘 듣고 하나님 받들 듯이 하고 동네 할아버지도 친아버지, 시아버지 모시듯 잘 했지요.”

5. 자영업자와 농업 노동자로서의 적응전략

생애사 주인공은 대포집을 시작했지만 잠시 성공을 거둔 후 몰락했고, 농업 노동자로 일 하고 있다. 이 시대의 적응 전략은 세상을 외면하고 자기 몸을 밀친 삼아 버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는 이미 거창한 꿈도 소망도 잊어버렸다. 그녀에게 있어서 삶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기 보다 버티내야만 하는 것이었다. 버티내기 전략으로서 참여자는 평생의 한 일보다 노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생애사 주인공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용을 거부했다. 매우 보기 드문 케이스이다. 이것은 독립적인 의식이라기보다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자 불만의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 뭔가 그거 안한다고 이야기 했지. 지금이나 장사할 때나 그저 하루살이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죽지 못해 살고 버티는 거야. 계획도 없어요 그것도 등 따시고, 배부른 인간들 이야기지. 그래도 기초 수급자간 영세민인가 안하고 버틸 때까지 버틸 거야. 가끔 쌀이나 뭐 주

는 것은 받아요. 그래도 돈은 끝까지 안 받을 거야. 돈 없이 살았는데 다 죽을 때 되서 그거 받아서 뭐해.”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의 적응 전략은 연령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이를 관통하는 것은 저항적 적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공원시절의 순응과 결혼생활 시기 현모양처로서의 적응전략은 저항적 적응과는 무관한 듯 보인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는 보조공원 시절에 자신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순응이라는 자기권리유보 차원의 저항이라는 전략으로 대응했고, 결혼 생활 시에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낙인에 대한 저항으로서 현모양처 되기라는 적응 전략으로 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은 말년에 이르러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급의 거부라는 국가·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저항은 연구 참여자의 일생과 함께한 낙인과 트라우마에 대한 회피 전략일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여성 수감 경험자의 경우 낙인과 함께 그들이 가진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다룰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 참여자의 생애는 과거 엄벌 위주의 교정 행정과 사회적 낙인 특히 삼청교육대 같은 경우 국가폭력, 제 3자가 가세하여 힘없는 여인을 삶의 나락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생애사 주인공의 삶에서 서발턴(subaltern)의 자기의식의 증언불가능과 사회적 낙인의 주제를 발견했다. 서발턴이란 이탈리아 출신의 좌파 사상이 그람시(A. Gramsci)의 옥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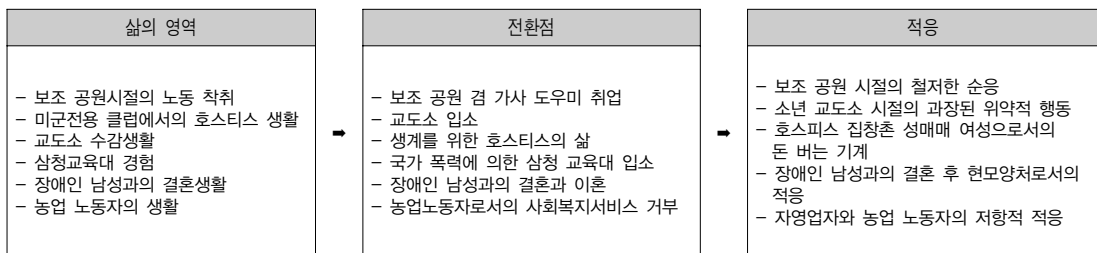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참여자의 생애 주제 범주화와 개념화 도식

고(The notebook of prison)에 등장하는 말로서 프로레타리아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하층계급을 의미한다. 그림시는 이탈리아 남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목동, 영세농 등을 주체화하기 위하여 서발턴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그 후 그의 아이디어는 하층민들을 역사의 전면으로 내세운 일군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었고 서발턴 그룹이라는 학파가 생성되기도 했다. 현대 서발턴 그룹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피박(G. C. Spivak)은 서발턴 연구를 여성하위주체에 대한 연구로 집중시켰다. 영미 지성사에 근본적 물음을 던졌던 그의 주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Can subaltern speak?)'에서 인도의 여성들은 남성가부장적 문화와 서구인들이 만들어 놓은 식민지 담론의 폭력으로 자신들의 의식을 증언하지 못하고 말은 하지만 자신들의 말이 아닌 남성과 식민주의자들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스피박은 남편이 죽으면 여성도 따라 죽어야 하는 인도의 사티의 예를 들고 있다. 남성 가족들은 여성이 원해서 죽음을 자청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들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18].

본 연구의 주인공 역시 전형적인 서발턴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의 희생양으로 그의 인생은 출발했다. 딸은 살림칠천이기에 어려운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만 된다는 아버지의 말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교도소 입소 역시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항변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그의 삶이 이야기 되었다. 특히 출소 후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은 이후에 그녀는 자기의 이야기를 생산하지도 못했고, 언제나 남성, 국가질서라는 이름 속에서만 말해졌다. 상담심리학의 경우 본 연구주인공과 같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자신의 의식으로 증언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서발턴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스피박은 서발턴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는 자살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서발턴이 자신을 말하는 방식이 자살이다. 연구 주인공은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은둔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위와 같은 억압적 삶과 사회부적응은

교도소 수감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지속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감 경험자들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사회적 낙인이다[19][20]. 이 낙인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하다. 하지만 낙인에 버금가는 것이 트라우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 평생 낙인과 함께 트라우마를 지니고 살아왔다. 여성 수감 경험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탐구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트라우마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21]. 트라우마(trauma)는 신체적이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고에서 정신적 외상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소 수감생활은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당사자에게는 트라우마로 경험될 수 있다.

트라우마의 증상은 과민반응(hyperalertness), 충격의 재경험(reexperience), 감정회피 또는 마비(avoidance or emotional numbness)인데[22] 연구 참여자의 과민반응과 감정회피가 지속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는 물론 트라우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 수감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여성 수감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와 사회 재적응 지원을 위한 교정상담차원에서의 구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출소 전 교화 프로그램으로서 교정 시설 내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장·단기 심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 재소자를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개별적/그룹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 재적응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되면 여성 출소자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자존감 회복과 교화 목적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 시설 내에 전문 교정·심리 상담사의 배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둘째, 출소 후에도 일정기간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성 출소자들의 상담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이 아닌 민간 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 출소자들 간의 지지집단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출

소 후 사회 재적응 기간 동안 심리적 부담감, 스트레스 완화를 돕고, 집단 상담을 통해 상호간의 지지·격려와 공감을 일으켜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하고 빠른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심리상담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상담 기관은 개인, 집단 상담내용과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여성 출소자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연구와 캠페인,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23][24]. 여성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교정복지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다양한 학계 연구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교정 연구·활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출소자들을 죄인/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회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은 새롭게 교화되었고 올바른 사회 재적응을 위해 사회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개념으로 재정립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 출소자들은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출하게 될과 더불어 각 가정과 사회 전반에 필요한 개인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영숙, "여성 수형자의 자녀와의 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의 방향," 교정복지연구, 제10권, pp.39-63, 2007.
- [2] H. Foster, "The strains of maternal imprisonment: Importation and deprivation stressors for women and childre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40, No.3, pp.221-229, 2012.
- [3] T. Opsal, "It's Their World, so You've Just Got to Get Through. Women's experiences of parole governance," Feminist Criminology, Vol.10, No.2, pp.188-207, 2015.
- [4] 남상철, 신연희, "여성노인의 빈곤과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 법태도를 중심으로 -, " 한국교정학회, Vol.24, No.24, pp.7-38, 2004.
- [5] 남상철, 신연희, "노인수용자의 효율적 처우방안," 한국교정학회, Vol.19, No.19, pp.163-189, 2003.
- [6] J. Petersilia, *When Prisoners come home: Parole and prisoner reent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7] 이아름, 김미현, 이동훈, "여성출소자의 사회재진입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ol.17, No.5, pp.388-409, 2017.
- [8] 이동훈, 신지영, 조은정, 김진주,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21, No.1, pp.81-108, 2016.
- [9] B. Bloom and S. Covington, *Gender-specific programming for female offenders: What is it and why is it important*, In 50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Washington, DC, 1998.
- [10] 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 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22, No.4, pp.595-622, 2016.
- [11] M. Chesney-Lind and B. Bloom, "Feminist criminology: Thinking about women and crime," in B. MacLean and D. Milovanovic (eds) *Thinking critically about crime*, Vancouver, Canada: Collective Press, pp.54-65, 1997.
- [12] L. S. Urban and B. Burton, "Evaluation the Turning Points Curriculum: A Three-Year study to Assess Parenting Knowledge in a Sample of Incarcerated Woman,"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Vol.66, No.1, p.58, 2015.
- [13] G. Rosenthal, *Interpretative Sozialforschung, Eine Einführung*, Juventa: Weinheim, München, 2005.
- [14] D. G. Mandelbaum, "The stor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pp.177-206, 1973.
- [15]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권, 제3호, pp.288-297, 2005.

- [16] 양민숙, 이동훈, “북한이탈여성의 생애사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10, pp.120-139, 2017.
- [1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7387&cid=42094&categoryId=42094>
- [18] 로절린드 C. 모리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파르타 차테르지, 리투 비를라, 드루실라 코넬, 라제스와리 순데르 라잔, 압둘 R. 잔모하메드, 미셸 바렛, 팽 치아, 진 프랑코 지움,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 [19] 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출소자의 가정복원 과정에 관한 교정전문가의 인식,” 한국가족복지학회, Vol.20, No.5, pp.499-530, 2015.
- [20] 류석진, 노지애, 이동훈, 박성현, 오세준, 조현주, “출소자 가정복귀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재활심리연구, Vol.23, No.2, pp.469-490, 2016.
- [21] 이동훈, “출소자의 가족복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8, p.114, 2016.
- [22] 최영신, 황정임,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06, No.1, pp.15-214, 2006.
- [23] 이동훈, 진지열, 신지영,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21, No.3, pp.327-364, 2016.
- [24] 윤지영, “젠더의 관점에서 본 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Vol.4, No.1, pp.97-122, 2012.

저 자 소 개

양 은 숙(Eun-Sook Yang)

정회원



- 2013년 2월 :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석사)
 - 2016년 12월 : 성균관대학교 상담교육대학원(박사수료)
 - 2017년 1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센터 연구원
- <관심분야> : 호스피스, 심리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

이 동 훈(Dong-Hun Lee)

정회원



- 2000년 9월 ~ 2006년 2월 : University of Florida(석·박사)
 - 2006년 3월 ~ 2007년 8월 :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수
 - 2007년 9월 ~ 2012년 2월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한부모, 출소자 가정, 재난심리, 트라우마, 외상 후 성장